

광양 어린이테마파크 규모 축소될 듯

“대규모 테마파크 경쟁력 없어” 심포지엄서 전문가들 제기 지역 특색 활용 브랜드 육성

“광양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소규모 테마파크를 제안하고 나서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증마동 커뮤니티센터 다목적실 1층에서 열린 광양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이 “대규모 테마파크는 경쟁력이 없으며 소규모 테마파크로 지역의 정서와 특색을 활용한 광양 시민의 대표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현 놀이문화의 트렌드에 따라 체험·놀이·교육을 모두 아우르고 안전과 보안까지 포함한 스마트 테마파크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어린이 콘텐츠는 빠르게 변화하므로 가변형 콘텐츠 및 어린이 놀이 플랫폼을 만들어 놀이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놀이프로그램 개발자를 활용하면 테마파크 활성화는 물론 운영비 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 시민들은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컨셉 설정과 외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콘텐츠 확보, 향후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성도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한 이슈 및 적용방안 등 4개 분야의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전문가와 시민들로부터 어린이테마파크 컨셉과 방향 등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사항과 운영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 패널은 “대규모 테마파크는 경쟁력이 없으므로 소규모 테마파크로 지역의 정서와 특색을 활용한 광양 시민의 대표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현 놀이문화의 트렌드에 따라 체험·놀이·교육을 모두 아우르고 안전과 보안까지 포함한 스마트 테마파크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어린이 콘텐츠는 빠르게 변화하므로 가변형 콘텐츠 및 어린이 놀이 플랫폼을 만들어 놀이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놀이프로그램 개발자를 활용하면 테마파크 활성화는 물론 운영비 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 시민들은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컨셉 설정과 외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콘텐츠 확보, 향후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성도



지난 23일 증마동 커뮤니티센터 다목적실 1층에서 전문가 패널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광양시 제공>

제기했다. 이와관련 시는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내실 있고 탄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현복 광양시장은 “사업 컨셉부터 도입시설, 운영방법 등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준비해 우리시만의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등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어린이테마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열고 전략 과제 논의

광양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7기 5대 핵심공약사항 중 하나인 미래 4차 산업 집적 육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개최식에는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위원장인 정현복 광양시장을 비롯한 위원과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위원·자문단 위촉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방향 설정하고 정책과제와 과업 추진상황 점검을 수행한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단은 위원회에서 수립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사업 채택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가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어 (재)전남테크노파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 광양시 노인장기요양협회, 장애인복지관과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은 민선 7기 미래도시 공약인 입으면 힘



이 세지는 로봇소프트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손잡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사업 추진에 있어 각 기관과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위협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힘써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 속도낸다

시, 한전과 지중화 협약 실시설계 용역 연내 발주 550억원 투입 2020년 완료

광양시는 지난 23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건설지사와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사업의 지중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한전과 지중화 협약 체결로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 사업은 2014년부터 정부에 수차례 건의와 해양수산부, 한국전력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여러 기관과의 협의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꾸준한 노력 결과 올해 실시설계비가 확보됐다.

◇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 재정분담 위한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시는 그동안 광양항 배후단지 내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전라남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중 국비 5억7천2백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기

간과의 사업비 분담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역할, 연차별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협의된 사항을 명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광양항 배후단지 내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상황 설명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한전 관계자는 협약 체결 이후 실시설계 착수가 지연된 이유로 백운변전소-광양항-울촌산단을 연결하는 구간의 시공예산과 공기단축 등의 조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향후 사업 추진계획 논의를 위해 열린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한전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한전의 지중화 승인이 최종 완료되면 시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약서 내용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실시설계 용역을 올 연말까지 발주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총 사업비 550억 원 투입 지중화 선로 7.5km와 2000㎡ 변전소 설치=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 사업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50억원을 투입해 백운변전소에서 광양항 배후단지 7.5 km 구간에 지중화 선로와 2000㎡ 변전소

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광양항 배후단지의 현행 전기 공급 체계는 2004년도 물류업체 중심의 수요 예측에 따른 것으로 대용량 제조업체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대용량 전력 소요업체의 입주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투자 유치 실패가 반복된 원인이 됐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냉동창고 설치와 황금·세풍산단을 경유해 울촌산단까지 대용량 전력 공급 계통이 확보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 특히 광양항 배후단지에 대용량 전력 수요 제조업체 유치가 가능해져 광양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이 설치되어 대용량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물류업과 함께 제조업 등 유망한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물동량 증대를 통한 광양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한전과의 지중화 협약 체결로 154kV 전력공급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혁신성장추진단 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방희석·이하 공사)는 대내외 혁신성장 관련 과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성장추진단’ (이하 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4일 킷오프회의를 가진 추진단은 경영본부장을 단장으로 정책제도분과와 혁신경영분과, 일자리창출분과, 항만활성화분과, 상생협력분과 등 5개 분과를 꾸리고 22명의 내부 전문가를 배치했다.

이들은 앞으로 혁신과제 발굴, 추진실적 공유, 혁신성과 점검 및 환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사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 주관 농림해양분야 혁신성장 협의체의 공동 프로젝트인 ‘해양특화 드론산업 활성화 사업’을 항만시설 관리·운영 실무에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사 자체적으로 발굴한 신규 혁신과제인 규제혁신센터 구성 및 운영, 일자리 창출 매칭 사이트 운영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배병춘 혁신성장추진단장(경영본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적극 수행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전남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

광양시는 ‘2018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 세외수입 분야에서 시상금 200만원과 함께 최우수상 수상했다.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는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3일간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이번 연찬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세정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분야로 나눠 연구과제 발표와 우수과제 발표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사진>

이날 연찬회에서 광양시는 징수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납세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한 ‘세외수입 One-Click 징수시스템’을 연구과제로 발표했다.

세외수입 One-Click 징수시스템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통합 운영해 행정효율을 증대시켰다. 또 세외수입의 사전통지와 부과, 체납 등의 과정을 일괄 납부일련 서비스로 제

2018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공하고, 납부패턴에 따른 결손처분 전산화로 세외수입의 체납관리 업무를 개선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징수기법 개선을 통한 납세자 편의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2015년 세외수입 분야 우수상, 2017년 지방세 분야 우수상 수상에 이어 이번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상 수상 등 지방세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왕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펜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